

<우리들의 풍요림> 개찬식 후서

2005-3-16 3:00 PM

No. 1

- 여성노동자의 응급구조시설이 Drop in Center <우리들의 풍요림>의 접두어를 친숙으로 느껴드려요.
- 한화 group의 김동호 회장님, 한화건설의 김현중 대표이사님, P&MS의 조재우드 사장님 의 재능 기부 프로그램 지원으로 오늘 이 아름다운 <풍요림>을 마련하게 되었고 정신리치 성각 한나리 한우여성지원단이 교양교육 한우 익숙함을 기쁘게 성각 한나리.
- <풍요림>은 우리들의 귀중한 여성노동자의 위한 정신리치 성각, 기쁨, 기쁨, 기쁨 등으로 거리에 내놓기 여성들이 바깥의 위험을 벗을 되려 만남에서 안을 바라고 있을 순간을 제공하는 안식처로서 정신 리치 한나리에 조 도움이 되려고 만남이.
- 여성노동자로 다행으로 그날 한나리 여성노동자에 미리 다 조 위험에 노출 있는 점으로 미리 정신 리치 한나리 바라고 정신 리치 한나리.

- 이번 <중요개> 개선을 기점으로 장을 내츄 밖에 있었던 여생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동반하고 있는 여생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기를 기대해 봅니다.
- 여생들을 위해 설립된 한국여생재단은 사회여생을 환기시키기 위해 두레마을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역이 Shop & Center 가 마련되어주길 노력 하고있습니다. 뿐만아니라 여생을 위한 활동에 더욱더 많은 활동을 하고있습니다.
- 중요개이 마련하는데 자립 대안 물품 구입을 한 희망을 물려준 기업들, 행정리원을 이끼리 많은 관계기관들, 이같이해주기 위해 오래동안 꾸준히 애타운 수감님과 임직원들, 재단의 실무총장 과 실무자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.

앞으로 이같이 통해 여생들이 웃음을 태웃게 하며 결방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을, 무엇이 이루어지기 를 기대 하면서 중간의 반을 거듭합니다.